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헴프클러스터' 조성 박차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  
 내년부터 총 3875억 투입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2030년 100조원 규모  
 글로벌 시장 선점 관건



면허증 재발급 위해 인파로 가득한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급을 위해 몰린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년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 29일 전주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몰린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전 세계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헴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원(국비 2,603억원, 지방비 333억원, 기타 93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36번(신산업 규제 재설계)과 51번(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포함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헴프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 구축이 쉽지 않고,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해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메가샌드박스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새만금에 '메가

특구'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개별 행위에 대한 예외 승인 방식이었다면, 메가특구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포괄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THC 0.3% 미만 헴프의 재배와 제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THC 초과나 안전관리 위반 등 위험 요소에만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사업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ha다. 1단계(2026~2030년)에는 농식품부의 타당성 용역을 포함, 1,275억 원을 투입해 부지 조성 및 스마트팜 등 2ha 규모 재배시설 구축,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설립, 10ha 규모 기업 입주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2단계(2031~2035년)에는 2,600억 원을 들

여 의료용 헴프산업 기반과 CDMO(위탁개발생산) 시설, 임상·비임상 평가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본격화 되고 있다.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재배·제조업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헴프산업 TF를 가동해 17회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으며, 경북도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국가 소유 부지로서 실현적 규제 완화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클러스터형 집적 구조를 통

해 재배부터 가공까지 일원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신항만과 연계한 글로벌 수출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도 크다. 전북대와 원광대, 농촌진흥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2020년부터 축적해 온 헴프 종자·재배기술·식약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해외 시장이 규제 완화로 헴프산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재배부터 가공,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메가특구' 모델을 통해 기존 규제 특구의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국민민복상 4년 연속 수상

## 尹정부 시절 신동진씨 말살 철회 '결실' 맺다

새만금 등 지역 현안 해결 면모도 보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민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기쁨을 토해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6연속 우수의원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뿐만 아니라 도내 대표적 신동진씨 축출을 철저히 막아내는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를 통해 기존 순창군에 장수군이 추가 선정되도록 하는 데 힘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동진씨 종자 보급 중단 철회에 기여하고 10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농촌진흥청의 전북 안전이전(품질관리평가과 수원 이전계획 철회) △농협중앙회 및 한국마사회 등 전북 이전 △농협계미컬 단계별 익산 이전 완료 △새만금 신항 운영을 위한 새만금항만공사 설립 제안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신속 추진 △새만금 수목원 전북 업체 우선 계약 보장 △진안 중심 국립 지역권 산림 약용작물 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 주요 현안을 다뤘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흠말받은 전북 뒷을 되찾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농정을 검증하고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과정과 성과를 인정받아 대단히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국감 우수의원(국민민복상)을 선정한다. /권희승 기자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씨가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민전을 기하고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씨를 '현대판 매관매직'의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

## "권한 없는 김건희, 국정에 개입"... 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마침표

'현대판 매관매직' 핵심 규정

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통일교 의혹에 관해서는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특검은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

며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며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맡은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를 비롯한 6명의 특검보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치는 소회를 전했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은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윤석열 부부의 뇌물수수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각종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기소됐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여럿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의 범위가 넓고 사안이 중대한 상황에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로 김씨의 범행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수사를 마친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 /김재훈 기자

강력한 리얼탄산 100% 이맛이 청정라거다!  
 정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